

주정용 보리 계약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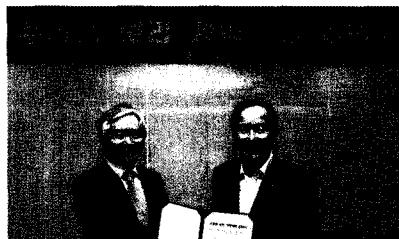
23세대 회원사업팀 과장

■ 주정용보리 계약재배 협약체결

협회는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제도 폐지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보리 계약재배 사업에 대하여 보리 농가 현황에서 정부시책에 이르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 검토를 해왔으며, 주정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와의 협의

〈보리 계약재배 협약 주요내용〉

- (사)한국주류산업협회 및 협회 소속 주정회사는 국내 보리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매년 5만여톤 규모의 보리를 농협중앙회와 계약생산 한다.
- 농협중앙회는 보리 생산농가를 위하여 (사)한국주류산업협회와의 계약 생산 사업을 적극 협력 추진한다.
- 협약서의 적용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며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당사자간 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본다.



를 통해 2011년 9월 5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협회 및 주정회원사 임직원, 농협중앙회 임직원,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정용 보리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하였다.

■ 보리의 주정원료 사용 역사

보리는 1983년 국세청의 '주정제조원료의 국산보리 대체계획'에 의해 1984년부터 1994년까지년 평균 14만여톤을 주정제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보리 생산량 감소 및 수입원료 대비 4~5배 고가인 보리 가격으로 인한 주정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점차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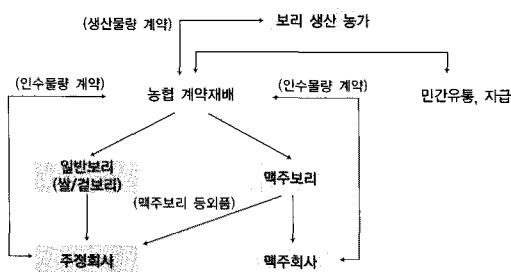
용량을 감량하게 되어 2000년도부터 매년 5만여톤을 사용하게 되었다.

■ 보리산업 정책 변화

보리는 1987년부터 정부 기본계획 하에서 농협이 농가와 계약재배 하고, 약정물량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인수·공매 처분해왔으나, 2006년말 농협 보리 재고가 277천톤으로 연간 주정용 수요(5만톤)의 약 6배 수준에 달하는 등 공급과잉 상황에 이르자 2007년 국무회의에서 매입가격이 공매가에 근접하는 2012년부터 정부 매입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 보리 유통 체계

보리의 유통경로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와 민간업체의 일반경로로 구분 됨.



■ 계약재배 기대 효과

주정업계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해온 원료인 보리를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에도 계속 사용 함에 따라 안정적인 국산원료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직전년도 생산분 사용에 따라 현재 오랜 보관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누적등 비용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어 현재 보리 구매비용(년간 약430억원)으로 더 많은 양질의 보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 대중주 소주의 원료인 주정의 국산원료 확보 및 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표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향후 소주 고급화를 위한 원료 차별

화 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리 재배농가는 주로 소규모 농가들로서 그동안 48개 이상의 시군구의 농가가 정부 수매에 참여해 왔으며 수매제도 폐지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리재배를 포기하거나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농협과 주정업체의 계약재배로 인해 농가소득이 보전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자원인 보리의 산업기반 유지 측면에서 민간의 계약재배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며, 소주원료인 주정의 보리 계약재배와 맥주회사의 맥주보리 계약재배는 정부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보리 계약재배 사업의 지속을 위한 과제

협회는 현재 남아있는 농협의 보리 재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 중이며, 2012년에 구속 전량처분으로 계약재배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약재배 단지 육성 및 대단위 보리 산지를 중심으로 대형농기계 지원, 건조·저장·포장 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구상중으로 민간유통 활성화를 통해 보리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용 보리와 맥주보리에 대해 정부의 양곡 수급조정 업무 대행으로 간주하여 수매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며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협회와 협의 중에 있다.

